

北韓方言의 研究에 대하여

金 英 培
(東國大 教授, 國語學)

I. 序 言

이 글에서의 '北韓方言'이란 특정한 학술 용어가 아니고, 다만 休戰線以北의 方言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咸鏡方言과 咸南 永興以南의 中部方言, 平安方言과 中部方言 中の 黃海道地域方言이 포함되나 아래에서도 언급될 바와 같이 현실적인 與件으로 말미암아 咸鏡方言·平安方言과 黃海道地域方言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방언 연구는 무엇보다도 현지 조사가 생명인데, 지난 40년간의 國土 分斷으로 南韓에서의 北韓方言 연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심한 사투리[方言]를 쓰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그 말씨를 듣고 그가 어느 道 출신이라는 정도는 알아 맞출 수가 있다. 이는 그 사람이 적어도 言語形成期를 그 方言을 쓰는 고장에서 보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물론 여기에는 個人差가 있어서 言語形成期를 지나고 成長地를 떠났어도 共通語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말씨가 달라진 사람도 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좋은 提報者를 만나기만 한다면 便法이기는 하나, 南韓에서도 越南한 北韓人士들을 대상으로 北韓方言을 조사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는 正常的인 것은 아니나, 南北의 往來가 불가능한 현실에

서 나온 窮餘之策이다.

그래서 光復 후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北韓方言의 연구는 文獻 연구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越南人士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였다.

그러하여 이 글은 새로운 연구는 아니고, 편집자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北韓方言의 연구 성과를 개관하는 것임을 밝혀 둔다.

한국어는 개개의 方言이 모여서 이루어지므로 국어의 올바른 연구는 어느 면으로는 방언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의 交流가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懇望한다.

Ⅱ. 研究 概觀

北韓方言의 연구도 광복 전에는 일본인 학자의 독무대였으니, 주지하는 파와 같이 小倉進平(1940·1944)과 河野六郎(1945)의 업적으로 대표된다. 小倉進平은 全國의 259 개 지점을 조사하면서 北韓에서는,

黃海道 18 개 지점(No. 170—187)
咸鏡南道 20 개 지점(No. 188—207)
咸鏡北道 15 개 지점(No. 208—222)
平安南道 17 개 지점(No. 223—239)
平安北道 20 개 지점(No. 240—259)

의 90 개 지점을 조사했다. 조사 지점은 주로 군청 소재지로 했고, 제보자는 국민 학교(당시 普通學校) 상급반 남녀 학생 약 10 명씩, 조사 시기는 1913년 11월에서 1928년 12월까지 전후 15 년 간에, 黃海道는 3 차, 咸鏡道는 4 차, 平安道는 2 차에 걸쳐 조사를 마쳤다.

조사 항목 수는 일반 어휘 1,285 개와 주로 活用語尾 425 개 가운데서 咸鏡道는 전자가 507, 후자가 150, 平安道는 전자가 325, 후자가 75, 黃海道는 전자가 309, 후자가 62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얻은 成果는 1914년부터 1932년 사이에 8 편의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이를 종합해서 《The Outline of the Kor-

ean Dialects》(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No. 12)가 나왔으며, 그의 연구를 集大成한 것은 1944년에 나온 《朝鮮語方言の研究》(上·資料篇 국판 514+31面, 下·研究篇 국판 665면, 地圖 10葉)이다.

그의 연구는 ‘·’와 ‘△·ㅅ’등 消失文字의 방언에서의 변천, 자음과 이중모음의 연결과 같이 주로 음운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活用語尾 및 語彙를 참고로 비교하여 方言圈을 區劃한 바, 行政區域인 道界와 方言區劃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 결과 우리말의 大方言圈을 慶尙·全羅·咸鏡(咸南의 定平 以北)·平安·京畿(黃海·江原·忠清道·咸南의 永興 이남 포함)·濟州島方言의 6개로 나누었다.

이와 같은 업적은 전국적인 조사 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국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오늘날 그 영향은 막중한 것이다.

물론 그 연구에는 현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각 방언 체계의 설정 없이 音韻史의 개체적인 항목의 對比만으로 방언권을 구획한 原子論的인 태도에 대한 비판은 면할 수가 없다(李秉根: 1979). 그러나 70여 년 전에 이미 이러한 연구에 착수하여 그만큼 업적을 이룬 것은 기억될 만한 일이다.

小倉進平의 제자인 河野六郎은 ‘가위’〔鋏〕의 방언을 통해 鷄林類事의 ‘割子蓋’를, ‘·’·‘△’·‘ㅅ’·‘複合母音 외’의 네 主題를 言語地理學의 방법으로 하여 ‘ka-si-gai’로 再構했다. 여기서도 北韓方言에 대한 方言區劃은 小倉進平의 그것과 같았다.

이상 이 광복 전의 대표적인 연구이거나, 우리 학자들의 연구는 거의 없다는 의미 한 실정이고, 다만 ‘한글’誌를 통해서 몇몇 地點의 단편적인 방언 자료 수집이 있었을 뿐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光復 후의 연구는 간접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6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성과를 이 글의 끝에 붙인 參考文獻에 발표 연도 순으로 모두 들어 놓았다.

연구 내용을 살피기 앞서서 그 동안에 이루어진 자료집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보기로 한다.

먼저 학문적인 것은 아니나, 軍機關에서 수집한 《북한 방언 및 북과 군사 술어》(1972)가 있다. 이는 小倉進平(1945·上)과 《한글》誌에 실렸던 平安·威鏡方言에다가 북한에서 歸順한 人士들에게서 직접 조사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국판 239 面の 단행본으로 조사 지점은 北傀가 변경한 행정 구역, 威鏡南北道, 兩江道, 慈江道, 平安南北道, 江原道, 黃海南北道の 9 개 道로 사용된 지명도 개편된 郡名에 따랐다.

한글 표기로 된 어휘의 배열은 類解式으로 명사(1,354 語)등 모두 2,258 語가 실려 있다(隱語·外來語·軍事術語 제외).

다음은 필자(1977)의 부록인데, 이는 平安南道 16개 지점, 平安北道 20개 지점에서 越南한 36명, 평균 연령 62.2세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1976년 4월~6월에 조사한 910개의 어휘를 ㄱ, ㄴ, ㄷ, 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세번째는 金履峽(1981)이 있는데, 이 분은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상당한 언어 감각을 가진 이로 수집에 15년, 집필에 4년이나 걸린 것으로 표제어 약 21,600 語가 신국판 593 面に 수록돼 있다.

이에 앞서 平安北道誌(1973)에는 같은 저자의 ‘平北사투리 小辭典’이 있는 바, 이것이 모태가 되어 《平北方言辭典》이 이루어지게 된다. 간행 경위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7부는 平北江界方言資料集(저자는 江界 출신임)이고 ㄴ부 이하는 平北方言資料集의 성격울 띤 것이다.

이는 未洽한 점도 있으나,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사라져 가는 고향말을 하나라도 더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겠다는 집념과 逆境 속에서 이루어 낸 훌륭한 업적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서평은 李基文(1982)가 있다.

다음에 연구 내용을 대강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文獻的인 연구로 劉昌惇(1957)은 平北方言(16 語)과 文獻語와의 關係를 찾아 통시적 고찰을 꾀했다.

필자(1982·1983a·b, 1985a·b), 崔林植(1984), 崔明玉(1985a·b)는 모두 Ross 목사의 《Corean Primer》(1877)와 《예수성 교전서》(1887)에 반영된 平

北方言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19세기 후반의 공시적 연구에 초점이 모아진 것이다. 이런 연구는 平安方言이 반영된 문헌이 아주 드문 처지에서 당시의 言語狀態를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며, 뒤늦게나마 이것이 연구 대상이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다음은 방언 조사를 통한 연구인데, 참고 문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적으로는 平安方言의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平安方言만이 ㄷ口蓋音化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여, 이 특징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하여 음운 체계와 일부 형태론의 記述에까지 미친 것이다. 그리하여 平安方言만이 ㄷ口蓋音化를 거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조음점의 차이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았다(필자: 1969, 1977, 1979).

	齒音	齒音	硬口蓋音
平安方言	ㄷ·ㅌ	ㅈ·ㅊ	
餘他方言		ㄷ·ㅌ	ㅈ·ㅊ

여기에서 河野六郎이(1945: 191~192) 지적한 j系 上昇二重母音의 j음을 基層의으로 기피하는 경향까지 더하여 다른 방언에서 볼 수 없는 음소 연결을 보이게 된 것이다(필자: 1977).

15세기	中部方言	平安方言
/ㄷ·ㅌ/+jV/	/ㅈ·ㅊ/+V/	/ㄷ, ㅌ/+V/
/ㄴ/+jV/	어두/'/+V/ 어중/ㄴ/+jV/	/ㄴ/+V/
/ㄹ/+jV/	어두/'/'+V/ 어중/ㄹ/+jV/	어두/ㄴ/+V/ 어중/ㄹ/+V/

또한 方言史的으로, 平安方言과 威鏡方言이 본시 北方方言에서 갈라졌다는 견해도 있었으나(李崇寧: 1967), 聲調가 없는 平安方言을 그것이 있는 威鏡方言에서 分岐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中部方言에서 갈린 것으로 보았다(필자: 1980).

다음으로 咸鏡方言의 연구는 외국인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니(Ramsey : 1974), 그는 주로 聲調에 대하여 中世國語와 咸鏡方言 및 慶尙方言을 비교하여 액센트 推移法則을 설정했다. 이는 후에 확대되어 그 자료와 더불어 단행본으로 간행됐다(Ramsey : 1979).

위의 Ramsey의 주장에 대하여 金永萬(1974)은 反論을 펴서 咸鏡方言에 대한 聲調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바, 활발한 연구로 定說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근래 咸鏡北道方言에 대한 金泰均(1981·1982·1983·1985)의 일련의 조사 연구가 있다. 이 중의 金泰均(1983)은 咸北方言의 下位方言圈의 분류를 시도한 것으로, 북한 방언 연구에서 이런 작업은 이것이 처음이다. 咸北 3市 11郡에서 36개 지점(咸南 3포함)에 대한 통신 조사(29)와 면담 조사(7)로 175語項의 사용 지점과 역사적 배경을 참고로 六邑方言圈·四邑方言圈·茂山方言圈의 셋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聲調 관계와 咸鏡南道方言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점이다.

그 밖에는 近刊될 咸北方言辭典(京畿大 出版部)에 종합될 것이므로 出刊을 기대하며, 平北方言辭典에 이은 또 하나의 큰 成果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黃海道地域方言의 연구가 있는데, 이는 小倉進平(1940) 이래 中部方言에 소속시켜 오늘날까지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바, 전국적인 조사로 다시 구획을 나누다면 그 결과가 어떨는지, 현재는 기대할 수 없다.

이 방언에 관한 것으로는 필자(1981)가 있을 뿐인데, 이도 越南한 黃海道 출신 제보자를 대상으로, 1市 17郡의 18개 지점에 각 2명씩 36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주로 母音體系와 음운 현상을 다룬 것이다.

黃海道の 위치가 북으로는 平安南道, 東으로는 咸鏡南道와 江原道, 南으로는 京畿道와 접해서, 결국 그 방언은 中部方言과 平安方言의 사이에 끼어서, 平南과의 境界 및 西北海岸은 다분히 平安方言의 영향이 있어 轉移地域의 특징을 보여 준다.

그러나 文法 분야의 조사를 하지 못해서 미흡한 점은 그대로 남는다.

이 방언의 연구에도 同學이 나와서 연구가 진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Ⅲ. 方言 특징과 구획

거듭되는 지적이지만, 體系的인 현지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각 방언의 특징을 밝히고 그로써 방언권을 區劃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全域의 방언 조사 없이 便法을 써서 해 온 연구이기에 방언의 특징을 동일한 관점에서 記述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 범위 안에서 端片的으로 언급해 둔다.

音韻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咸鏡方言은, 똑같은 것은 아니나, 慶尙方言과 같이 聲調가 있다는 점이고, 平安方言은 中部方言과 같이 聲調가 없다는 점이다.

研究小史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子音에서 音價가 다른 것이 있는데, 平安方言과 黃海道 北部 地域方言의 /스, 츠/은 齒莖音 [ts, tsʰ]인데 반해서 餘他方言은 硬口蓋音 [tʃ, tʃʰ]이다. 이로 말미암아 平安方言에서는 ㄷ口蓋音化가 수용되지 않으며, 黃海道 北部地域은 中部方言의 영향이 오래된 때문에 ㄷ口蓋音化가 실현됐다고 본다(이하 用例는 모두 아래의 語彙 대비표 참조).

母音에서, 平安方言은 3序列 3系列 4角體系 /i, e, ε, i, ə, a, u, o/의 8개이고, 黃海道地域方言은 /i, e, ε, φ, i, ə, a, u, o/의 9개다.

한편 (Ⅱ.)에서의 언급과 같이 平安方言은 ㄷ口蓋音化 거부와 아울러 語頭나 語中을 막론하고 /ㄴ, ㄹ/에 上昇系二重母音이 연결되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

그런데, 咸鏡方言 中 6邑方言에서는 ㄷ口蓋音化가 실현되지 않음과 동시에 j系上昇二重母音이 /ㄷ, ㅌ, ㄴ, ㄹ, 스, 츠/에 연결되나, 그 밖의 咸鏡方言은 中部方言과 같다.

소위 中間子音 -ㅂ-, -ㅅ-은 平安方言과 黃海道地域方言은 다 같이 消失되었으나, 咸鏡方言은 慶尙方言과 같이 유지되고 있으며, 用言 活用에서도 ㅂ規則·ㅅ規則이 慶尙方言과 같으나, 平安方言과 黃海道地域方言은

ㄴ不規則·ㄷ不規則으로 活用된다.

例外的인 것으로 平安方言의 ‘듣다’〔聞〕는 ‘듣으니, 들어서, 들은……’으로 規則 活用된다.

이밖에 形態論에 관련된 것은 자료가 많지 못하여 다음 표로 그 일면을 알아 보는데 그치기로 한다.

	威 鏡 方 言	平 安 方 言	黃 海 道
한 다	함 메 함 메	함 네 함 네	— 함 네
합 니 다	하오다 함메다 합지비	함네다	합니다
합니까?	함동? 함두?	함네까?	합니까?
있습니다	잇소다 잇수다	잇쇄다 잇수다	잇쇄다 잇시다

위의 보기는 해당 단어가 그 방언권의 전지역에서 쓰이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특징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다음 語彙面도 위의 표와 같은 식으로 아래에 표를 만들어 보았다.

표 준 어	威 鏡 方 言	平 安 方 言	黃 海 道
가 울	가 슬	가 울	가 울
가 워	가 새	가우·강에	가 워
낫 다[癒]	나사서	나아서	나아서
잇 다[繼]	이어서·니어서	니어서	이어서
누 에	누 배	누 에	누 에
새 우	새 비	새 우	새 우
굽 다[炙]	구 버	구 워	구 워
졸리다[睡]	자브롭다	졸리다	졸리다
이[齒]	이·니	니	이
양 반[兩班]	양반·냥반	냥반	양반
여 름	여름·너름	너 름	여 름

육 십	육십·늑십	늑 십	육 십
걸[寺]	걸·덜	덜	걸
좋 다	좋다·똥다	똥 다	좋 다
지나다	지나다·디나다	디나다	지나다
장 마	장마·당마	당 마	장 마
천 지	천지·던디	던 디	천 지
선 녀	선 녀	선 녀(베)	선 녀
서 른	서른·설흔	설 흔	서 른

이상의 방언 특징만을 가지고서는 바람직한 방언 구획을 그을 수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小倉進平의 說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곧, 咸鏡方言은 咸鏡北道 전부와 咸鏡南道の 定平 以北(永興 以南은 中部方言)이 그 구역이다.

平安方言은 平安南北道 全域이다. 여기서 다른 점은 종래 平北 厚昌郡을 咸鏡方言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있었으나, 필자(1977)는 수정하기를 주장했다.

黃海道地域方言은 中部方言圈에 소속되는 것으로 본다.

Ⅳ. 北韓의 연구

北韓의 方言研究는 알아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자에게 별로 없거니와, 다만 年前에 日本 東京外國語大學 도서관에서 볼 수 있었던 김병제(1959, 1965, 1975)의 《조선방언학개요》(상·중·하)가 고작이다.

그리고 외국인으로 비교적 북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던 西獨 Bochum 대학의 Werner Sasse 교수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주최 제 1 회 國際學術會議에서 발표한 'Dialect Studies in North-Korea'가 참고될 뿐이다.

한편 金敏洙(1972)를 비롯한 일련의 연구가 金敏洙(1985)《北韓의 國語研究》로 간행되었으나, 여기에는 방언 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김병제(1959)는 1 장 서론에서 방언의 개념, 인접 학문과의 관계, 방언의 발달, 방언 연구의 역사를 개관하고, 2 장에서는 방언 조사를 위한 제

보자와 조사 지점, 조사 기간·방법, 轉寫 등에 관해 언급했다. 3장은 語音體系의 기술이고 끝에 찾아보기(고어·방언)를 붙였다(국판 353면).

중권(1965)은 1장 서론, 2장 단어 구성에서의 방언적 특성, 3장 방언에서의 문법적 형태와 찾아보기로 형태론적 연구에 충당되었다(305면).

하권(1975)은 문장론(통사론)과 어휘론에다 어휘 묶음이라고 하여 방언색인을 붙였다(234면).

이 세 권은 말하자면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방언 연구를 集成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본다. 물론 이 저자 이외에도 방언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기는 하겠으나, 이런 정도의 저서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북한에서 이 방언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방법론은 그가 광복 직후까지도 한글 학회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주로 한글 학회의 전통을 이은 연구 방법인데, 이는 Sasse(1979)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일례로 그의 모음 기술 태도를 본다면 20년 전의 것이라지만, 음운론의 경우 모음 4각도 정도의 언급으로 끝나고 모음의 체계적인 파악이나 상관적 대립 등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으니,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들 체제 하에서는 모든 것이 이른바 위대한 수령의 교시에 의해 이루어지니만큼 방언 연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리하여 순수한 방언 연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70년대에 들어서는 그들의 표준어인 이른바, ‘문화어’의 보급을 위해 방언을 없애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V. 餘 言

흔히 마스크롬의 발달에 따라 傳統的인 方言은 소멸돼 간다고 한다. 그래서 南韓에서는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주관으로 1980년 7월부터 1985년 7월까지 전국 138개 지점에서 방언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런데 北韓의 방언 조사는 어떠할까? 필자가 아는 한, 南韓과 같은 전

국적인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들의 言語政策과 言語觀이 唯物史觀과 마르크스의 言語理論에 입각한 것이고(金敏洙:1985) 모든 연구는 수령과 黨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런 與件 아래서 순수하게 학술적인 방언 조사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越南한 人士들 중에서 좋은 提報者를 선정해서라도 北韓方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南北의 왕래가 실현되어 현지 조사를 공동으로 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그럴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參 考 文 獻

- 劉昌惇(1957) 平北語散考, 一石李熙昇先生頌壽紀念論叢.
- 李崇寧(1967) 韓國方言史, 《韓國文化史大系 V, 言語·文學史篇》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 金英培(1969) 平安方言과 口蓋音化, 東岳語文論集 6집, 東岳語文學會.
- 金敏洙(1972) 北韓의 言語政策, 高大 亞細亞問題研究所.
- 金英培(1972) 未來時制의 한 考察, 東岳語文論集 8집.
- 金英培(1973) 平安方言의 '듣다' [聞]에 대하여, 梁柱東博士古稀紀念論文集.
- 金亨奎(1974) 咸鏡道方言·平安道方言·黃海道方言, 《韓國方言研究(下)》, 서울대 出版部.
- Samuel Robert Ramsey(1974) 咸鏡·慶尙 兩方言의 액센트研究, 國語學 2집.
- 金永萬(1974) 국어운들의 본질과 변천, 국어국문학 65·66호.
- 金英培(1976·a) 方言接觸의 한 考察, 國語學 4집.
- 金英培(1976·b) 平安方言研究序說, 성봉 김성배박사 회갑기념논문집.
- 金英培(1977) 《平安方言의 音韻體系研究》, 東國大 韓國學研究所.
- 金英培(1978·a) 평양방언의 비구개음화, 한글 161호.
- 金英培(1978·b) 平安方言의 舊相, 東岳語文論集 11집.
- Samuel Robert Ramsey(1979)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 Dialects》, 塔出版社.
- Werner Sasse(1979) Dialect Studies in North-Korea, 제 1회 國際學術會議 語文學分科,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金英培(1979) 平安方言의 形態論的 考察, 省谷論叢 10집.
- 李秉根(1979) 方言研究의 흐름과 反省, 方言 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崔鶴根(1980) 平安道方言研究, 韓國方言學, 창간호, 韓國方言學會.
- 金英培(1980·a) 高句麗語와 平安方言, 韓國方言學, 창간호.
- 金英培(1980·b) 語彙統計學上으로 본 平安方言과 咸鏡方言, 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
- 金履浹(1981) 《平北方言辭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金英培(1981) 黃海道地域方言研究, 東國大 國語國文學論文集 11집.
- 金泰均(1981) 咸鏡北道鍾城郡方言—資料一, 京畿語文學 2집, 京畿大.
- 〃 (1982) 咸北六邑方言研究, 京畿語文學 3집.
- 金英培(1982) Ross 목사의 著作과 平安方言, 韓國方言學 2집.
- 李基文(1982) 〈書評〉金履浹編著《平北方言辭典》정신문화 통권 12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方言」7집에 再收錄.
- 金英培(1983·a) Corean Primer의 音韻과 表記, 東岳語文論集 17집.
- 金英培(1983·b) Corean Primer의 음운현상, 한글 179호.
- 金泰均(1983) 咸北方言調査研究, 全炳斗博士 華甲紀念論文集, 京畿大.
- 金英培(1984·a) 《平安方言研究》, 東國大 出版部.
- 金英培(1984·b) 平安方言의 疑問終結語尾, 새결 박대권선생 퇴갑기념논총.
- 崔林植(1984) 19世紀後期 西北方言의 母音體系, 啓明大 大學院.
- 金敏殊(1985) 《北韓의 國語研究》, 高大 出版部.
- 金英培(1985·a) Corean Primer의 어휘(上), 靜山 丁益燮博士 華甲紀念論文集.
- 金英培(1985·b) Corean Primer의 어휘(下) 月村 具壽榮先生 華甲紀念論叢
- 金英培(1985·c) ㄷ口蓋音化 再考, 素堂 千時權博士 華甲紀念 國語學論叢.
- 金英培(1985·d) ㄹ母音逆行同化와 그 介在子音, 韓國文化研究 2집, 京畿大.
- 金泰均(1985) 咸北方言調査研究 II, 韓國文化研究 2집. 京畿大.
- 崔明玉(1985·a) 西北方言의 文叙述語尾에 대한 形態論的 研究, 方言 8집.
- 崔明玉(1985·b) 존 로스의 〈Corean Primer 한국어초보〉와 영북 의주 지역어, 素堂 千時權博士 華甲紀念 國語學論叢.
- 金泰均(1986) 咸北方言辭典, 京畿大 出版部.
- 小倉進平(1940)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 The Toyo Bunko.
-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의 研究(上·資料篇)(下·研究篇).
-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放—缺語考一.